진실을 경험하라 -밀레 MILLET

光州日報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9785호 1판 (음력 6월 22일) 2014년 7월 18일 금요일

우암학원 창학64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N TECHNO UNIVERSITY

헬기 추락·폭발 장면

①17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성덕중 인근에 소방헬기가 80도 각도로 급추락하고 있다. ②추락 직후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화염에 휩싸인 모습. ③화염이 10m 떨어진 성덕중과 주변 상가까지 번지고 있다. 〈YTN TV화면 캡쳐〉

헬기, 학교·아파트 옆 수직낙하 폭발 '아찔'

수완지구 도심 추락 … 탑승 5명 사망·여고생 1명 부상

광주공항 이륙 4분만에 '쾅' … 기체 결함 가능성 높아

헬기추락 ▶관련기사 3·6·7면

광주시 도심 한복판에서 소방헬기가 추락해 탑승자 5명 전원이 숨졌다.

사고 헬기는 아파트·학교·상가 밀집지역으로 추락했으나 다행히 아파트 등을 피하면서 추락해 우려했던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다.

사고 헬기는 최근 정비업체에서 보조유압 펌프 스위치 등 고장 수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고 원인이 고장수리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헬기 추락 5명 사망**=17일 오전 10시 53분께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부영2차 아파트 206동과 고실마을 시내버스 승강장 사이에 있는 토담(흙으로 쌓아 만든 담)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강원도 소방본부 소속 조종사 정성철(52) 소방경·조종사 박인돈(50) 소방위·정비사 안병국(39) 소방장·구조대원 신영룡(42) 소방교·구조대원 이은교(31) 소방사 등 5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

또 추락지점에서 직선거리로 3~4m 떨어진 고실마을 시내버스 승장장에 서있던 박모(19)양이 파편에 맞으면서 팔·정강이에 화상을 입고 광주 K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날 세월호 실종자 수색정찰을 마친 뒤 광주공항에서 출발, 강원도 춘천기지로 향하던 중이었다. 이들은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세월호 실종자 수색정찰차 파견을 나왔으며 이날 기상악화로 수색정찰이 취소되자 광주공항에서 출발, 강원도 춘천기지로 향하던 중이었다.

◇**추락 헬기 한 달 전 고장 수리**=사고 헬기는 최근 전속 외주정비업체인 삼성테크윈(김포공항)에서 수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헬기는 지난달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정기점검을 한 뒤 ▲연료 이송 펌프 작동 램프 ▲탑승자 전동식 발판 ▲랜딩 헤드 라이트 ▲보조 유압 펌프 스위치 등 4건에 대해 고장수리를 했다고 강원도 소방본부는 밝혔다.

사고 헬기가 사고 현장 상공을 지나다가 80도 각도로 급강하한 점을 감안하면, 기체 결함으로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강원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최근 사고 헬기에서 4곳의 기체 결함이 확인돼 지난달 23일 전속 외주 정비 업체인 삼성테크윈에 의뢰해 모두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사고 헬기가 노후화되지도 않고 베테랑 조종사 2명이 운항을 책임졌는데, 사고가 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수완지구 헬기 추락 위치도

◇**사고원인 등 수사**=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5명은 이날 사고 현장에 급파,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다. 이들은 사고 현장에서 블랙박스 2개와 기체 파편 등을 수거한 뒤 원인분석에 나섰다.

또 광주지방경찰청은 이날 명확한 신원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시신의 정밀감식을 의뢰했다. 이날 오후 7시 현재 유가족들은 광주에 도착했으며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순직 대원들의 시신은 광주에서 춘천 효 장례예식장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백희준 수습기자 bhj@kwangju.co.kr

학생들의 불안한 시선 광주시 소방본부 소속 소방대원들이 17일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헬기 추락사고 현장에서 잔불을 정리한 뒤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 사고 현장 뒷편에선 성덕중 학생들이 불안한 모습으로 사고 수습을 지켜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호남, 상생이 미래다 ▶2면
민선 6기 단체장에 듣는다
고길호 신안군수 ▶11면

프로야구 나눔의 올스타전
오늘 광주 챔피언스필드 ▶20면

학교설립 60주년 기념
독거노인 무료개안 수술을 위한 자전거 투어
8월 4일(월)~5일(화) 062)605-1128
광신대학교

7·30 재·보선 선거운동 돌입

광주·전남 4곳 등 전국 15곳

오는 7월30일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4곳에서 17일부터 공식선거운동이 일제히 시작됐다. 〈관련기사 4면〉

이번 7·30 재·보궐선거는 ▲광주 광산을 ▲나주·화순 ▲순천·곡성 ▲담양·함평·영광·장성 등 4곳을 비롯해 서울 동작을, 경기 김포 등 전국 15곳에서 열리는 역대 최대 규모의 '미니 총선'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이번 재보선은 박근혜 정부의 중간 평가 성격까지 더해져 유례없는 대회전을 예고하고 있으며, 특히 여당의 과반 의석 유지 여부가 주목된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지역 정서상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친박'인사인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와 '친노'인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서갑원 후보 간 '왕의 남자' 대결이 펼쳐지는 순천·곡성 보궐선거 결과가 가장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광주 광산을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의 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전략공천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지역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은 연일 새정치민주연합과 권 후보를 상대로 '보은 공천'이라며 십자포화 공세를 펼치며 압박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은 광산을 선거구에 중앙당과 시당 당직자들을 대거 동원해 사실상 정당간 사활을 건 선거운동을 벌일 전망이다. 한편, 각 후보들은 이날 출정식 및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